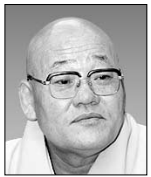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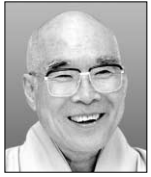


일주문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상임이사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장 법장 스님은 7월 26-27일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주석사찰인 김해 관음정사에서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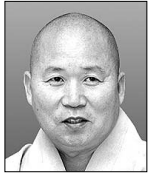
'간화선 수행의 길' 주제 특강 불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7월 7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불교서울전 문강당 초청으로 '간화선 수행의 길' 주제의 특강을 했다.



남곡 스님 22주기 추모재 고창 선운사 주지 범어 스님은 7월 23일 오후 2시 석문당 남곡 큰스님 22주기 추모재를 봉행하고 문도회 모임을 연다.(063561-1422)



가람빈가 합창단 창단 19주년 행사 수원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6월 30일 조계종 제2교구분사 용주사 합창단인 '가람빈가 합창단' 창단 19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도선사 실달학원 9기 졸업식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7월 1일 호국참회원 2층 교육관에서 불교교양대학인 도선사 실달학원 9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수국사 주지 취임법회 서울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은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수국사 법당에서 신임주지 취임 법회를 봉행한다.(02)356-2002



광운대 전 내무부장관 초청 법회 광주 덕림사 주지 무이 스님은 7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광운대 전 내무부장관 초청 '지역발전과 불교지도자의 역할' 강연회를 개최한다.(062)362-2091



어린이 한문학당 개설 대구 은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7월 24-30일 톨비니유치원 법당에 어린이 한문학당을 개설한다. (053)621-1003



워싱턴서 연꽃그림 전시 수중 스님(강동구 금화사 주지)은 미국 연방수생식물원 초청으로 7월 16일 까지 미국 워싱턴 D.C AM 아트센터에서 연꽃그림 전시회를 연다.



서울사랑시민상 수상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모주 회장은 7월 8일 여성발전기에 기여한 공적으로 서울시가 시상하는 제2회 서울사랑시민상(여성부문을) 받았다.

대한불교진흥원 제5대 이사장에 홍승희씨 유임



(재)대한불교진흥원은 7월 6일 신라호텔에서 제112차 이사회를 열고 홍승희 현 이사장(사진)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홍승희 이사장은 "올해 설립 30주년과 설립자이신 장경호 이사 열반 3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진흥원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

는 한편, 재도약과 이미지 쇄신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승희 이사장은 故 서문각 이사장의 타계 후 지난해 10월부터 잔여임기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3년동안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정보관리의 처음과 끝은 정성"

유물포장 1인자 김홍식씨 7월부터 조계종 성보전문위원회 맡아

유물포장의 독보적 존재인 김홍식(61·사진)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32년간의 국립중앙박물관 생활을 마치고,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탁연로) 자리를 옮겨 7월 1일부터 성보전문위원회(상근)으로 근무를 시작해 화제다. 김홍식 위원은 1973년 국립중앙박물관(유물계)에 입사해, 정년퇴직한 6월 30일까지 같은 유물관리부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국보급 유물에 대한 포장과 이동을 전담해왔다. 그의 포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3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문화재를 다루면서 실수 한번 하지 않을 정도의 치밀함과 작은 흠집 하나라도 날까 조심스럽고도 안전하게 포장하는 그의 손길, 그리고 솜씨는 듯한 포장 아이디어는 놀라기까지 하다. 그런 그가 총무원 문화부로 왔다는 사실은 정보관리에 있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 일하면, 불교중앙박물관과 성보박물관들의 유물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끌렸다. ▲성보전문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유물 포장·이동 등 관리 측면에서 연구자들을 뒷바라지 하는



으면 자연히 나오게 된다. 유물을 다루며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고가 나지만, 강한 애착을 갖고 정성껏 일하면 사고가 날 수 없다. 일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슬·담배도 끊었다. 이 같은 자세는 처음 입사했을 때 상사로 모셨던 이난형 경주박물관장으로부터 배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96년 올림픽을 기념해 열린 애틀랜타올림픽문화교류전에 한국이 유일하게 출품한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을 포장했던 일이다. 무게가 115kg이나 되는 금동반가사유상을 360도 회전해도 안전하게 포장하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연구 끝에 대화와 불상을 밀착시키고, 불상의 무릎에 로프를 걸어 두고, 서랍식의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시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 포장으로 안전하게 미국에 갈 수 있었다. 이 포장을 본 미국의 박물관 관계자들은 조그만 나라에 이런 포장 기술이 있느냐며 놀라워했다. 한국의 포장기술로 국위선양한 셈이었으니, 기쁨이 컸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34개 성보박물관이 운영 또는 계획 중이다. 이들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문제점을 살피고, 협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불교중앙박물관이나 성보박물관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박물관들과 달리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교중앙박물관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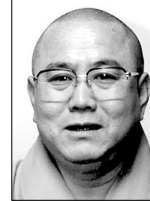
외국 박물관이 13억 연봉제안 거절

불교계 연구자 뒷바라지 선택

▲조계종 총무원에 성보전문위원으로 부임한 계기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스카웃 제의를 몇 건 받았다. 그 중에는 연봉 13억을 제시한 해외 박물관도 있었다. 하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 보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조계종이나 사찰과 맺은 인연이 깊다. 성보박물관 전시가 있을 때 가서 도와주기도 했고, 관리 방안을 조언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늘 아쉬움이 있었다. 마침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이곳에

역할이 추가 될 것이다. 유물 관리자에게는 유물에 쌓인 먼지 한번이라도 더 닦을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안목이 없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최고의 유물포장 기술자가 되기까지의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정성은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

10·27 법난불교대책위 상임대표 법타 스님 "문헌 역사 되찾을 터"



"10·27법난은 부도덕한 신군부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저지른 만행입니다. 이제 진실을 규명해 반드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10·27법난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7법난 당시 정을 내장사 재무국장 소임을 보다가 군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기도 했던 법타 스님은 "당시 낙산사 주지 원철 스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적지 않은 스님들이 아직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며 "피해 스님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

역촌노인복지센터 7월 1일 개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 산하 역촌노인복지센터가 7월 1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성운 스님, 인덕노인복지회관 관장 도광 스님과 노재동은평구청장, 서울재활병원 정동화 원장, 구상목 국회의원의장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거사림 창립 33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거사림(회장 배호암)은 6월 28일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창립 3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초청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소림사 회주 정일 스님, 공법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을 비롯,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교사불자런 대구지부, 교직원 명상연수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구지부(회장 신연섭)은 7월 2-3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초, 중, 고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제3회 교직원 명상요가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연섭 회장은 "명상과 요가로 내면을 돌아보고 가다듬어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자"고 말했다.

제1회 노인복지프로그램 공모 시상식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7월 7일 센터 3층 강당에서 제1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공모전 지정공모 부문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노춘예 찬 팀이 자유공모에는 꽃동네현대사회복지대 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일광스님의 신행수기, 기도발 이야기

기도발 祈禱發

《출판기념법회》 · 장소: 서울 영등포구 탑사(塔寺) · 날짜: 2005년 7월 14일 · 시간: 오전 10시 30분 · 전화: 02)2635-2611

부처님의 가피력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불자에게 발현된다.

해가 중천에 뜨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의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지만 해가 먼 바다에서 떠올 때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비추는 것 같이 자극히 기도하는 불자에게 부처님의 기도발이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사바세계 자력(自力)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탐진치 삼독의 결정체가 인간이요 사람이다. 여기에 자력이란 실로 어려서움의 극치요 무지의 소산이다. 겸손과 하심을 배워라. 불보살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신광사 홈페이지: www.kidobal.com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일광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051-442-6556) 도서출판 현대북스 (051-244-1251) ※법보사유는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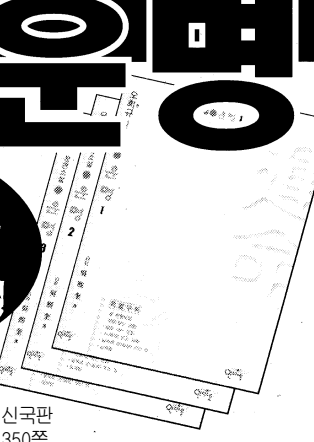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히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룩내용■ 공감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퀴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천재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인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년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께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히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